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전북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 모집

전북도가 오는 16일까지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2개 사업이 대상이다.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는 5일 오후 2시에 (재)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도전실(본관 2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82만 2천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번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 신청대상이며,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심사부문에 그리고 새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부문에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선정인원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

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9월초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임실군 섬진강다슬기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도, 전국 우수마을경진대회 11년 연속 수상

'임실군 섬진강다슬기마을 영농조합법인' 우수상 수상 5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전북도가 2021년 전국 우수마을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며,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전국 최초로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임실군 섬진강다슬기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마을기업을 발굴해 성공사례를 공유, 확산하고 있다. 그간 도는 최우수상 4번, 우수상 4

번, 장려 1번 등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11년 연속 행정안전부 우수마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내 전북도 마을기업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 우수상을 수상한 '임실군 섬진강다슬기마을(주)'은 다슬기 가공 사업으로 지난 2017년 마을기업으로 진입해 다양한 시도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보관기간이 짧은 다슬기를 지역민에게 수매하고 가공·판매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애인 기관과 연계해 취업 취약계층도 상시 고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임실군에서만 운영하는 음식점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은 37% 상승했고 더 많은 일자리(11명~14명)를 만들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서는 우수마을기업 발굴과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입사생 26명 선발

전북도서울장학숙이 2021년도 청운관에 입사할 고시 준비생을 선발하기 위한 '청운관 입사생 선발요강'을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26명(남 15, 여 11)이며, 자격요건은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부·모)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계속해 전북도에 돼있거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도이면서 지원자가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이다. 1순위는 2021년도 5급공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입법고시·국립의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합격자, 변호사시험(로스쿨 재학생 또는 출신자), 준비생(2021년도 1차시험 면제자 포함). 2순위는 2021년도 공인회계사 1차 합격자, 3순위는 2022년도 '입법고시·5

급공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국립의교원의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준비생(2021년도 1차응시자에 한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인터넷(http://seoul.jdream.or.kr)과 전북도인재개발교육진흥원 또는 서울장학숙에서 접수를 받는다. 전북도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서울장학숙을 건립, 운영해 오다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시원인 '청운관'을 지난 2005년 12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다. '청운관' 수용인원은 64명으로 1인 1실의 숙식실과 세탁실, 정보공유 및 시

청각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서울장학숙 출신자 중 사법, 행정 등 각종 고시에 242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현재 청운관 입사생 중 이번 신규로 선발하는 26명을 제외한 38명이 2차 시험에 응시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고시 전문숙소인 청운관에서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더욱 더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운관 입사생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서울장학숙 홈페이지(http://seoul.jdream.or.kr)를 참고하거나, 전북도인재개발교육진흥원(063-276-8310) 또는 전북도 서울장학숙(02-580-6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분쇄포장육 안전관리 강화

법률 개정 시행 식육포장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실시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7월부터 식육 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7월 1일부터 법령

이 개정되면서 떡갈비 등과 같은 분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도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전북도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업소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2,000여건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품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축산물 가공업체는 285개소(식육가공업 224, 유가공업 50, 알가공업 11)이며,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405개소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첨단 검사 분석장비를 이용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가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불변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예방

전북도, 14일까지 새만금유역 민원 발생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점검 실시

전북도가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의 운영·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점검한다. 도는 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유도를 위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유역 민원 발생지역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새만금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 축산농가 7,233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업체 162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01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사항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취약시기·지역 수

시점검 강화, 비대면 점검 확대 등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가축질병(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발생 상황 지속에 따라 점검 취약시기를 틈탄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비대면 점검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용욱 새만금해양수산업장은 "장마철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을 계획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